
수출입은행, 대기업-중소기업 상생 다리 놓는다

대우인터내셔널과 히든챔피언 발굴·육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

- 한국수출입은행(은행장 김동수)과 (주)대우인터내셔널(대표이사 부회장 이동희)은 12월 17일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“유망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”을 체결했다.



- 이번 업무협약은 ▲ 해외마케팅 지원 ▲ 해외현지법인 설립 및 영업 지원 ▲ 해외판매(수출) 지원 ▲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의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.
- 대우인터내셔널의 글로벌 마케팅 능력과 수출입은행의 국제 금융지원 노하우가 결합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히든 챔피언 육성대상기업이 세계적인 수출기업, 즉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지난 8월 삼성물산에 이어 이번 대우인터내셔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대기업-중소기업 간 윈윈(win-win)할 수 있는 상생의 다리 하나를 더 놓게 되었다.